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베르타 듀데가 내면의 음성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계시

번역자: 마리아, 요하네스 박

세계시 친구들이 출판

Hans-Willi Schmitz
St. Bernardinstr. 47
47608 Geldern-Kapellen
Germany

++++++

이 게시는 기독교 종파를 초월한 것이며, 어떤 기독교 교파에 속하도록 권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며, 어떤 신앙 공동체를 위해 모집하지 않습니다. 이 게시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출처: <https://www.bertha-dudde.org/ko>

목차

7797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4
오만과 교만	6
0632 자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굴욕을 당할 것이다... 자기 옳음	6
5021 자신을 높이는 사람. 거만. 경의를 표하게 하는 일	7
3641 영적 교만	8
3336 영적인 교만. 겸손과 은혜	9
8208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을 증거한다	10
7203 영적인 거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	11
7730 영적으로 월등함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다	12
7803 영적인 교만과 그의 위험	13
심장의 겸손	16
4919 겸손과 교만. 위험	16
3244 스스로 깨닫는 일. 혼에 대한 작업. 은혜. 겸손	17
3265 거만. 겸손. 은혜	18
5587 겸손	19
7057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20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22
3269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22
7566 하나님께 향한 의지가 완성에 이르게 보장한다	23
8627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24
섬기는 이웃 사랑	27
7308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27
2923 싸우거나 섬기거나. 거만. 겸손	28
5341 거만	29
5913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	30
겸손한 심장으로 기도하는 일	31
3682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31
5805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32
8589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교만. 겸손	33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선물	35
5595 의지가 은혜의 받는 일을 정한다. 은혜	35

5104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효력이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36
7877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37
8418 구속사역의 은혜. 강화 된 의지.....	39
4956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과 어두움.....	40
7678 겸손하라는 권면.....	41
8281 거만의 위험.....	43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B.D. No. 7797

1961년 1월 14일

너희가 인간으로써 이 땅의 과정을 성공시키려면, 너희가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면, 너희가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을 알아야만 한다. 너희는 나로부터 최고로 온전한 존재로 생성되어 나왔다. 너희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고 빛과 능력이 충만했다.

너희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인 나와 계속하여 연결이 된 가운데 있어 너희가 쉬지 않고 나로부터 빛과 능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므로 말할 수 없이 축복 되었다. 그러나 너희의 온전한 성품에 자유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신적인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자유의지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줘야만 했다.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처럼 온전하게 남거나 또는 너희의 성품을 반대로 바꾸어 너희의 온전함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록 너희의 의지가 전적으로 자유 할지라도 내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하고 내 뜻 안에 서게 하는 일을 통해 너희의 신적인 요소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그러면 너희는 반대되는 처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 너희는 자유의지의 증거로써 너희의 의지가 나와 내 의지에 반대라면, 나를 떠나 타락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나는 나에게 속한 나에게 의해 창조 된 존재들에게 더욱 큰 축복을 줄 수 있기 위해 이런 의지의 결정을 요구했다.

나는 이런 의지의 결정을 먼저 나에게 의해 창조 된 내 아주 큰 사랑이 영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창조하고 조성할 수 있게 내 형상으로써 생성되어 나오게 한 빛의 영에게 요구했다. 그는 최고로 온전하게 나로부터 생성되어 나왔다. 그는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와 나 사이에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는 나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반면에 나는 힘의 원천 자체였다. 그도 이를 깨달았다. 왜냐면 그는 최고의 깨달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가 의지의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이 시험은 그가 항상 능력을 제공 받은 나 자신을 힘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의지와 내 능력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모두가 최고로 온전한 그들의 신적인 요소를 증명해주는 모든 은사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생성되게 되었다.

이런 모든 존재들을 생성했다는 의식이 첫 번째로 창조 된 영인 빛의 전달자를 거만하게 했다. 그의 거만 가운데 나를 거부했다. 그러므로 그는 의지의 시험에 합격하기 못하고 자신의 의지로 나와 결별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런 결별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들이 소멸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존재들은 나와 내 능력의 제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를 떠나는 일을 빛의 전달자인 루시퍼가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는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큰 수의 존재들을 자신에게 이끌고 갔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결정해야 했고 나를 떠났다.

영의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이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의 귀환의 길로써 그들을 다시 출처도 인도하기 위해 나에게 다시 인도하기 위해 셀 수 없이 많은 가장 다양한 종류의 창조물들을 창조한 원인이다. 왜냐면 존재가 나와 다시 연합이 되면, 비로소 다시 축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나와서의 간격은 가장 큰 불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이 지식을 너희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시도한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귀환하는 과정 중에 있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고 이미 목표 직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한때 가졌던 온전한 성품을 반대로 바꿨다.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너희는 인간으로써 아직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이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키면, 너희가 내 신적인 질서의 법칙에 복종하면, 너희가 사랑의 삶을 살고 너희의 성품을 다시 원래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전적으로 사랑으로 바꾸면, 너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사랑이 너희를 다시 나와 연합이 되게 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 사랑을 나로부터 자유의지로 받아야만 한다.

내 사랑이 너희에게 다시 비추어 주기를 원하면, 너희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이 땅의 과제를 성취시키기 위해 모든 일을 행해야만 한다. 이 과제는 너희가 너희의 의지를 다시 나에게 향하게 하는 일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나에게 드리는 일이고 사랑으로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깊은 지식이 제공될 것이다. 빛이 없는 상태가 너희에게 사라진다. 너희는 밝은 깨달음을 얻는다. 너희는 모든 연관 관계를 이해한다. 너희는 불행한 상태를 벗어난다. 너희는 나와 연결을 이루고 이런 연결 가운데 너희가 한때 가졌지만 자유의지로 버렸던, 나로부터 한때 빛이나는 나 자신의 형상으로 생성되었고 최종적으로 다시 내 형상이 되어 할 모든 존재들이 소유했던 축복을 찾는다. 왜냐면 내가 창조하였을 때 내 목표는 최고의 축복 가운데 나와 함께 창조하고 역사할 수 있는 내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고 이 것으로 남기 때문이다.

아멘

자만....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굴욕을 당할 것이다.... 자기 옳음....

B.D. No. 0632

1938년 10월 21일

너희는 너희의 의지력으로 인해 내면의 평화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곤경 가운데 주님을 향한 부름이 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영적인 연약함과 내면의 불만은 사랑이 없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게 사랑이 커지는 일이 하늘의 아버지와 옛 관계를 회복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가려는 의지를 자극하고, 항상 사랑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모든 혼의 위험을 해결한다. 그러므로 너는 완전히 우리의 영향력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작하라: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겸손해지게 될 것이다. 세상 앞에서 광을 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언젠가는 버림받은 가운데 쓰라리게 그의 이 땅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자신의 약점을 겸손하게 깨닫고, 이 땅의 길을 겸손하게 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단지 그런 삶이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자신을 높이는 일에 대한 투쟁이 특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큰 유익을 준다. 그런 교만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땅의 삶에서도 혼에게 가장 큰 위험은 교만이다.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가 높이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그가 스스로는 얼마나 적은 일을 할 수 있는 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신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표현할 수 없게 고통스러운 종류의 많은 일들이 먼저 인간 자녀에게 일어나야만 한다.

모든 교만은 죽음 앞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인간은 그의 깨달음을 더 이상 남김없이 사용할 수 없고, 그의 은혜의 시간이 그에게 혼을 위한 성공을 주지 못한 채 지나간다. 사람이 갑자기 이 땅의 골짜기를 떠나야 한다면, 모든 영광과 부유함과 모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명성이 자신에게 실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사람이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사람은 자신을 넘어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가 주님의 은혜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람은 교만한 가운데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그의 자만심은 항상 더 커진다. 그러나 혼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한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서 생각에 잠기게 될 것이다.

모든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사람이 무엇이 된 일에 대해, 그가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 유일하게 그의 창조주에게 그는 감사해야만 한다. 따라서 그는 공덕을 최소한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자만은 단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신호일 뿐이다. 이 때문에 사람이 세상의 보물의 무가치 함을 인식하고, 불멸의 부를 모으려고 노력할 때까지 빛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명예와 명성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기적에 자신을 몰입시키는 일이 먼저 그 사람의 내면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구할 것이고 받게 될 것이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 등을 돌린 아버지께 영원히 돌아갈 것이다.

아멘

자신을 높이는 사람. 거만. 경의를 표하게 하는 일.

B.D. No. 5021

1950년 12월 15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웃이 자신을 경의를 표하게 하는 사람은 그가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저 세상에서 그의 보상이 진실로 적게 될 것이다. 너희 사람들은 너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한다.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이미 온전함을 전제로 하는 축복된 영들의 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웃에게 경의를 표하기를 요구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갑자기 이 세상에서 부른다면 내 눈 앞에 합격할 수 없는 너희가 어떻게 이웃에게 경의를 표하게 할 수 있느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라에서 높임을 받는 일은 깊은 겸손을 전제로 한다. 너희는 이런 겸손을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이런 겸손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일을 비굴하게 복종하며 섬기는 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 사람들은 절대로 이웃 사람들 보다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영적 은사와 재능과 활발한 이해력이나 또는 다른 능력면에서 너희에게 차이가 있는 일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고 너희의 창조주와 아버지가 너희의 이 땅의 사명에 따라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가 너희를 거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너희는 단지 너희에게 아주 풍성하게 준 분에게 단지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혼이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육체가 죽은 후에도 살아남는 것은 유일하게 혼임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적인 선물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너희가 우월하다는 권리를 부여하는 육체도 언젠가 사라지고 혼 외에는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에게 아주 큰 경외심을 갖는 일은 적절한 일이 아니고, 자신의 형제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발 밑에서 엎드리는 일이 적절한 일이 아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게 하고, 그에게 왕의 권세를 부여하지 않았는데 자신을 왕으로 높이는 일은 적절한 일이 아니다. 왜냐면 심지어 세상의 권세자가 단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를 원하면, 자신의 백성들에게 사랑이 충만한 아버지와 같은 권세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그에게 합당한 경의를 표할 것이고, 그가 내 뜻에 의해 사람들에게 대한 세상의 권세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그의 거만은 덕성이 아니고 내 눈 앞에 연약함이고 허물이다.

너희 사람들 모두는 내 앞에서 모두 같은 존재이고, 너희는 서로 간에 형제처럼 되어 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진정한 자녀처럼 살고, 겸손한 심장을 가진 가운데 머무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나의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가운데 살았는지 나의 이 땅의 길을 생각해야 한다. 나는 그들에게 형제요 친구처럼 함께 했고 또한 형제처럼 그들을 가르쳤다.

나에게 진실로 모든 권세가 있었고,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고, 세상의 부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왕처럼 다스릴 수 있었고, 나에게 모든 경배를 드리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높은 사람들을 보지 않았고 단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보았고 그들에게 낮아져 다가갔다. 나는 오만함을 몰랐고 사람들로 부터 명예와 명성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사랑을 주었고, 단지 사람들의 사랑을 구했다. 나를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그러나 절대로 권세로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나처럼 자신을 낮춘다면, 그는 비로소 나의 나라에서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아멘

영적 교만.

B.D. No. 3641

1945년 12월 30일

영적 교만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는 일을 방해한다. 단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가운데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긴밀하게 진리를 구하기 전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깊은 겸손을 통해, 사람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모두가 생각해야만 한다. 사람은 실제 자신의 이성을 활용하여 지식을 얻는다. 또는 그가 동의하는 외부로부터 온 지식을 받고, 그는 이를 굳게 붙잡는다. 이 지식이 그의 소원과 관점에 맞으면, 이 지식은 그에게 대부분 충분하고, 그는 모든 제공되는 지식이 자신의 지식에 합당하지 않다면, 자신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이를 거부한다. 그는 다르게 생각하는 자신의 이웃 사람들을 거만하게 대하고, 그들 편에서 제공되는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은 어렵다. 왜냐하면 단지 자신이 알지 못한다고 여기고, 자신의 능력으로 영적인 지식을 깨닫기에 자신이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이 겸손하게 진리를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겸손한 기도를 원한다. 사람이 아직 오류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믿음이 사람들이 진리를 구하는 일을 막는다. 왜냐하면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가장 풍성한 지식을 갖고도 내적으로 겸손하게 머물고, 자신의 지식을 증가시켜 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나중에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 높아지는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자신을 끝없이 작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는 항상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대화를 빠르게 중단한다. 왜냐하면 그는 가르침 받기를 원하지 않고, 대신에 항상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영적인 거만함으로 자신의 지식을 전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을, 그에게 진리를 전해주려는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가 영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이성의 생각으로 그에게 반박하는 모든 것을 이기려고 시도하고, 영의 역사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자신이 성숙하고, 현명하다고 여기고, 자신의 일꾼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진리의 제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는 하나님 자신에게 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만한 영이 그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는 진리에 도달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영의 영역을 전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깨달음이 비로소 그로 하여금 질문하는 생각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겸손하게 진리를 구한다면, 비로소 그에게 진리가 전해질 수 있다. 왜냐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거만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계시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교만. 겸손과 은혜.

B.D. No. 3336

1944년 11월 19일

영적인 오만함이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왜냐면 진리는 자신이 작고 작다고 생각하고 가장 겸손하게 서서 그의 은혜에 합당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고서 알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교만 해진다. 왜냐면 사람의 지식이 적기 때문이다. 비록 사람이 순수한 진리를 학교 교육하는 방식으로 받아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통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을 때에 단지 그는 진리를 진리로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단지 겸손한 사람들에게 역사한다. 그런 사람을 진리를 구한다. 왜냐면 그가 진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영적 오만함이 그에게 큰 장애물이다. 왜냐면 진리가 그에게 주어지면, 그가 진리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오만함을 나타낸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의 이성을 사용하여 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했고, 이제 이 지식대로 이웃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올바른 지식임을 보장하는, 즉 진실한 합당한 지식임을 보장하는 하나님과 연결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들이 스스로 정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올바른 종, 즉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의 길을 가로 막는다. 그는 자신에게 주장하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종에게는 부인한다. 그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적인 부를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지적인 부가 그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그는 그가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그에게 제공해야만 하는 직분에 대한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주장한다. 그에게 영의 역사로 얻게 되는 내면의 겸손이 부족하다. 왜냐면 영의 역사를 통해 그가 학교에서 받은 지식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가 지식을 진리로 깨닫는다면, 이 지식이 비로소 올바른 지식이 되기 때문이다.

영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겸손한 사람은 그가 잘못된 길을 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풍부한 지식으로 그를 행복하게 하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고, 그를 이

땅에서 자신의 대리자인 자신의 종으로 만든다. 즉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그를 부른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만한 사람의 지식은 이웃 사람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제공된 학교 교육 방식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한 그대로 제공한다. 그러나 사람 안의 영의 역사를 통해 심장에서 영접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지식은 생명력이 있게 될 수 없고, 생명을 깨어나게 할 수 없고, 단지 이성이 활동하게 하지만 그러나 심장이 행하게 하지 못한다. 영적으로 거만한 사람은 인간의 심장에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깊이 겸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 얻는 성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을 증거한다.

B.D. No. 8208

1962년 7월 7일

우로부터 내려준 내 은혜의 선물을 비판하려고 하고 또는 자신이 이를 판단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단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이미 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이성만으로 판단하려는 사람은 생각으로 진리에 진리의 출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오만한 것이고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이런 시험을 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면 만약에 그가 내 동행함이 없이 영적인 영역의 들어선다면, 그에게 영적인 영역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오판을 한다. 그들은 절대로 올바른 수 없는 판단을 내린다.

왜냐면 그가 깊은 겸손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 요구되는 이 가운데 겸손하게 나에게 의뢰하고 자신의 생각을 깨우쳐 주기를 구하는 것이 요구되는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한 추구를 하지 않아 아주 오랫동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단지 자신의 이 땅의 삶을 살고 자신의 내면의 삶이 질서 있게 되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하려고 하고 헤아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판단해보게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왜냐면 그에게는 전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 땅으로 흐르는 충만한 은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게 남기 때문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한때 깊은 곳으로 타락해 모든 깨달음을 잃었고 아직 그의 내면이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는 먼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주는 빛을 자신 안에서 켜야만 한다. 그러나 그는 겸손하게 자신의 이성의 연약함을 깨달아야 한다. 그는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영의 영역을 헤아려 보기 위해 영의 영역에 들어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볼 수 있는 가장 작은 능력도 없으면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거만하게 오판을 한다. 이는 아주 큰 영적인 교만의 증거이다. 그들이 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때까지 그들은 더욱 어두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들의 진리를 향한 소원이 진지 하면, 그

들이 나 자신에게 의뢰하면, 그들은 내 설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겸손하게 나에게 다가와야만 한다. 왜냐면 단지 겸손한 자에게 내가 내 은혜를 선물 해주기 때문이다.

너희가 교만한 영으로 있으면, 전적으로 교만한 그리고 이런 교만을 너희에게 전달 해주기 원하는 내 대적자가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날카로운 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어떠한 가르침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순수한 진리로 인도받을 수 없다. 왜냐면 진리는 단지 바로 겸손한 사람들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진리는 나로부터 나오고 단지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의 심장에만 감동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그는 아직 사랑이 전혀 없고 자기 자신을 모든 것 위에 세우고 나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야 한다. 영적인 교만은 너희를 전적인 영적인 봉사가 되게 하고 너희가 절대로 내 은혜의 선물을 영접하고 이해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왜냐면 너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너희를 가장 깊은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게하기를 원하는 대적자가 이를 방해하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은 너희에게 단지 혼동된 생각이고 어떤 빛도 비추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영적인 거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

B.D. No. 7203

1958년 11월 6일

영적인 거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내 종을 통해 그에게 제공될 때 자신을 닫는 사람은 언젠가 큰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왜냐면 어떠한 빛이 충만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일은 영적인 무능력이 아니고 저속한 동기로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 대적자는 자신의 영향을 통해 거부하게 지원한다. “영적인 거만함”이 모든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영적인 거만함은 사람이 어두움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왜냐면 영적인 거만함은 나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타락한 자의 영적인 거만함이 그에게 비추이는 빛을 거부했다. 그러므로 그는 어두움에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처럼 내 은혜가 심장에 밝음의 빛 줄기를 주기 위해 빛을 비추기 원하면, 거만함 가운데 빛을 거부하는 사람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거한다. 그러나 거부하는 동기는 심각하다. 왜냐면 사람의 거만함이 아주 심하게 판단을 받을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더 이상 가르침이 필요 없다고 믿고 영적인 지식을 충분하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믿고 자신의 지식을 아주 높이 평가해 다른 지식이 필요 없다고 믿는 일을 영적인 거만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사람은 그에게 제공되는 것을 시험해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가 아직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굳게 붙잡고 새롭게 거부하면, 그의 판단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서 판단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

나 시험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극단적으로 거부하며 내가 제공하는 은혜의 손길을 물리친다.

언젠가 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크게 될 것이다. 왜냐면 언젠가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너무 늦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강제로 내 말을 영접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번은 의심나는 질문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다. 왜냐면 나 자신이 아직 올바른 길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의 심장에 이런 의심을 넣어 주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이런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 그들은 이를 통해 단지 유익을 얻을 것이다. 왜냐면 그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구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설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진지하게 진리를 갈망하는지는 증명될 것이다. 왜냐면 진리가 그에게 확실하게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거만함은 즉시로 거부한다. 왜냐면 한 사람이 거부하기 원하고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의 의지를 확실하게 성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거만함이 한때 빛의 존재를 타락하게 했다. 그러므로 거만함은 그의 모든 추종자들의 성품이고 그의 추종자들에게서 알아보지 못할 수 없는 추종자들의 특징이다. 큰 걸음을 내딛어야만 한다.

사람이 진지하게 성품을 바꾸려고 시도해야만 한다. 사람이 교만에서 겸손으로 내려 가야만 한다. 그러므로 자신을 전적으로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만 하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다가 와야만 한다.

그러면 비로소 사람의 심장 안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모든 사람을 위한 그들의 혼의 구원을 위한 귀한 은혜의 선물인 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감사하며 영접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양식과 음료를 원할 것이고 그러나 계속하여 내 사랑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아멘

영적으로 월등함은 영적인 교만이 아니다.

B.D. No. 7730

1960년 10월 23일

영적으로 월등함과 영적인 교만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사람을 진리 안에서 인도하면, 그가 내 말을 통해 다시 이웃에게 합당한 선생이 되게 하기 위해 가르침을 받게 하면, 그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대변할 수 있다. 왜냐면 이 지식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자신이 순수한 진리를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고 이 진리를 단지 이성을 통해 얻은 내 영이 역사할 수 없었다면, 절대로 진리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는 사람들의 지식보다 더 높게 평가해야 함을 확신할 수 있다.

만약에 그가 나로부터 직접 받은 나로부터 온 진리를 대변하는 일이라면, 이 일을 절대로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내 영적인 내용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어떠한 주저를 하는 일은 잘못 된 일이다. 너희는 단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만 않으면 된다. 다시 말해 너희가 공개적으로 내 대적자의 영을 깨닫는 곳에서 말을 하는 것이다.

왜냐면 그런 곳에서는 진리를 진리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모든 하는 말은 헛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영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내 영의 역사를 거론해야 한다. 그는 공개적

로 확정적으로 내 말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면 그가 나와 내 나라를 위해 일하면, 나 자신이 그를 사용해 그를 통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실로 그가 말하게 하는 영이 거만한 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번 나에 의해 진리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깨달음 속에 있다. 그는 모든 연관 관계를 깨닫고 그러므로 이에 관해 말할 수 있다. 그가 영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 자신의 지식이 진리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는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대변할 것이고 잘못 된 관점을 수정하거나 또는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거만하다고 말할 수 없고 그의 영적인 탁월함을 깨닫고 인정해야만 한다. 그가 전하는 진리가 청중들에게 감동을 줘야만 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 그에게 말하는 자는 나 자신이라는 내적인 확신을 그에게 줘야만 한다. 내가 내 빛의 전달자의 의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영의 은사를 그들이 활용할 수 있게 나누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이 순수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가진 내 일꾼을 택한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감사해하며 영접한다.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과 만나게 인도받아 자신의 의지에 따라 진리 안으로 인도받는다. 너희는 항상 내가 단지 겸손한 자에게 내 은혜를 선물함을 그러므로 교만한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나로부터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한다.

왜냐면 단지 깊이 겸손한 심장만이 이 진리를 영접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는 너희에게 전해진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지하게 시험해본다면, 너희는 버릴 수 없을 것이다. 영적으로 우월한 것은 단지 진리 안에 서있다는 전적인 확신이다. 나는 내 빛의 전달자들에게 이런 확신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로부터 온 진리를 이웃에게 대변할 수 없을 것이다.

영의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길을 밝혀주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면 너희 사람들이 어두운 길을 통해 전진할 수 없고 너희는 항상 계속해 깊은 곳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빛을 전할 것이다. 이 빛을 영접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에게 진리의 빛이 가르쳐주는 길을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영적인 교만과 그의 위험.

B.D. No. 7803

1961년 1월 21일

영적인 교만은 가장 큰 악이다. 왜냐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주 큰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전적으로 모두 대적자에게 속하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능력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의 심장이 겸손하게 변화될 때까지 묶여있을 것이다.

이 변화를 위해 대부분 한번 이상의 이 땅의 과정을 거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물질 안으로 새로운 파문을 가는 일이 필요하다. 영적인 교만은 거만으로 인해 깊은 곳으로 타락한 자로부터 유전 된 죄이다. 그는 자신의 영적인 교만을 영원에 영원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아주 적게 낮게 무능력한 것을 느끼고 이제 자기에게 능력을 선물해 줄 분에게 능력을 구하게 될 때 그는 비로소 아버지에게 향하는 길을 택할 것이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므로 자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으로써 자신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도 영접하는 일도 높은 권세가 줄 수 있는 어떠한 도움도 필요치 않은 것으로 믿는 그의 추종자들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전적인 믿음 없음과 영적인 교만은 항상 함께 갈 것이다. 왜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절대로 이런 유전 된 악으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흘러 갈 수 없다. 이웃들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왜냐면 그는 자신이 영적인 영역에 해당이 되는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모든 것 위에 높이 거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아주 희귀하게 성공한다. 왜냐면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대적자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다.

대적자는 그가 자신의 추종자로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자신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로써 자신의 권세와 능력이 약화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에게 큰 세상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이 닥쳐야만 한다. 그래서 그가 자신 안에서 약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되어야 한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의 인간적인 소질로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아야만 한다. 그가 이런 부족하다는 생각하게 돼야만 한다. 그러면 그는 서서히 자신의 거만을 포기한다. 그러므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의식할 수 있는 그들이 이를 통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삶의 환경에 처하면,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은혜이다.

그러나 그의 자유의지는 항상 그에게 남게 된다. 이 때문에 대적자는 항상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마찬가지로 자신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빛의 세계 편에서도 그의 혼을 얻기 위해 새로운 파문을 가는 운명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싸운다.

사람이 자신의 죽음 이전에 자기가 전적으로 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데 성공하면, 그가 죽기 전에 자신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는데 성공하면, 그러면 그는 아직 저세상에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는 다시 한 번 모든 창조물에 과정을 거치는 길을 갈 필요 없다.

그러면 혼이 이 땅에서 자주 그에게 비추어 주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빛에 저세상에서 도달하기 위해 싸워야만 하고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일에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혼들에 대한 긍휼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런 혼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혼이 이 땅의 육신을 벗을 때 자유의지가 유일하게 이 혼의 운명을 결정한다.

겸손과 교만. 위험.

B.D. No. 4919

1950년 6월 22일

겸손한 사람에게 나는 내 은혜를 선물하고 거만한 사람에게서 은혜를 거둔다. 왜냐면 교만은 사랑을 질식시키는 반면에 겸손은 사랑이 깨어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에게 나의 모든 사랑이 속하고, 그에게 측량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가 부여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이웃에게 거만하게 대할 수 없고, 이웃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섬긴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이웃사랑을 행한다. 나를 그런 일을 축복하고 다시 나의 사랑과 은혜로 그에게 보상한다.

교만한 사람의 심장은 강박하고 감정이 없고, 섬기지 않고, 지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는 내 인정을 받지 못한다. 왜냐면 이런 감정과 지배하려는 욕망이 전에 나를 떠나게 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이 죄는 단지 나를 향한 깊은 겸손으로 속죄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나에게 되돌아 오는 일을 의미한다.

영적인 존재들이 교만 때문에 깊은 곳으로 타락했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이 인간의 단계에 도달한 일은 그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에 처한다. 이런 교만은 이웃을 향한 사랑 없음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 성장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스스로 자신에게서 빼앗고, 이로써 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일은 크게 위험한 일이다. 나는 너희가 너희 자신의 책임으로 다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너희에게 항상 이 위험에 주의를 준다.

교만한 모든 것은 나의 대적자에게 속한 것이다. 나의 대적자는 가장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머물고, 나를 넘어트릴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한때 최고의 빛을 가졌고, 그가 자신을 나보다 더 높였기 때문에 나의 대적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을 나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다고 믿었고 이로써 가장 깊은 심연으로 떨어졌다. 교만이 바닥이 없게 깊게 타락하는 첫 걸음이다. 반면에 겸손은 위를 향하는 사다리이고, 나에게 향하는 가장 안전한 다리이다. 왜냐면 내가 은혜를 선물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목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나의 은혜는 내 도움을 의미하고, 내 원조를 의미하고, 나의 인도를 의미한다.

너희가 전에 지은 나를 떠난 죄를 생각하라. 너희를 나에게 이끌기 원하는 아주 큰 내 사랑을 생각하라. 너희의 연약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생각하라. 너희가 처한 큰 간격을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는 깊은 겸손으로 너희 머리를 숙이고 사모하는 가운데 너희의 손을 나에게 내밀 것이다. 그러면 나는 나의 사랑과 은혜로 너희를 붙잡고, 너희가 나와서 간격을 줄이기 위해, 너희를 생성되게 한 나에게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나와서 간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면,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기도하기에는 너희가 너무 귀하다고 믿는다면,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고

이로써 너희는 너희를 타락시킨 자의 권세 아래 놓이고, 너희는 절대로 전에 교만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고, 너희는 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영원히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된다.

아멘

스스로 깨닫는 일. 혼에 대한 작업. 은혜. 겸손.

B.D. No. 3244

1944년 9월 4일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혼이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여기면서, 자기 만족에 빠진다면, 이는 가장 큰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가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증명해야만 하는 겸손이 그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만이 단지 높은 곳을 추구한다. 자신을 연약하게 느끼는 사람이 단지 능력을 구하고, 그가 깊은 겸손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며, 다가가면, 그에게 능력이 주어질 수 있다.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해야만 한다. 자신을 단지 아직 부족하게 여기는 사람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알면서, 이를 극복하려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사람은 애쓰는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 위한 모든 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자신과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세상과 물질을 향한 경향과 혼이 영을 자유롭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신의 악한 충동과 싸우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 싸움은, 혼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육신이 아직도 요구하는 동안에는, 쉬운 싸움이 아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깨달아야만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얼마나 반대인지 알아야만 한다. 그는 하나님이 그가 전적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한다. 악한 생각이 사람 안에서 떠올라서는 안 된다. 즉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동요는 선하고, 부드러워야만 한다. 모든 덕스럽지 못한 것과 싸워야만 하고, 자신을 온유하고, 평화롭고, 인내하며, 긍휼이 있고, 겸손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그는 항상 자신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가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작업을 행한다면, 그는 항상 자신의 연약한 점과 실수를 찾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는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이 땅에서는 자기에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성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사는 동안에 그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 애써야만 한다. 그가 자신에 대한 엄격한 점검을 통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굳은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깊은 겸손한 가운데 머물러야만 하고, 자신과 자신의 역사를 작게 여겨야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그에게 공급이 되도록, 이로써 그가 혼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기 위해, 더욱 더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아멘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구할 때 나는 가장 낮은 자에게 나의 사랑을 베푼다. 왜냐하면 그의 겸손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는 자신을 작게 여기는 사람을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나에게 올 수 있고, 다가와도 된다. 나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피조물인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단지 거만해져서는 안 된다. 거만해진다면, 너희에게 은혜가 부족하게 되고, 너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는 온전하지 못하고, 너희에게 나의 은혜와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궁핍해지면, 너희는 또한 내 앞에서 너희를 작게 느끼고, 겸손한 기도로 이를 증명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고, 이를 통해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나 너희가 베푸는 분에 비해 너희 자신을 더 높게 느낀다면, 너희는 절대로 베푸는 분을 심장으로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오만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줄 수 있기 위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기 위해, 겸손한 심장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복하는 가운데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나와 어린 자녀와 같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로써 내가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어린 자녀처럼 겸손하게 나를 구하면, 너희가 너희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나에게 주고, 그러면 나는 너희가 너희 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가 정상에 도달하도록 도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은혜가 이제 너희에게 넘치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아주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열고, 그가 이제 나의 사랑이 그에게 넘치게 주는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만한 영을 가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의 기도는 실제 외적이고, 심장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처럼 그에게 다가 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아직 나와 자녀의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그의 이웃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기가 어렵게 될 것이고, 또한 이웃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는 한 형제가 다른 형제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웃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이고, 단지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웃사람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고, 진정한 사랑은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가장 낮은 자를 붙잡아, 그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작은 자를 긴밀하게 사랑하고, 그가 높은 곳으로 도달하도록 돕는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항상 나의 은혜를 받기 때문이다.

아멘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그가 사랑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다가갈 것이다. 너희 심장에서 음성을 들으라. 너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나타난 일로 인해 거만하게 되지 말라. 겸손한 가운데 항상 그에게 복종하라. 그리할 때 그가 너희에게 부어줄 은혜의 정도가 끝이 없을 것이고, 너희는 아버지의 심장으로 향하는 길을 찾은 진정한 자녀가 된다. 겸손이 너희들을 충만이 채워야만 한다. 가장 큰 사랑의 선물이 너희들을 교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은 너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단지 그의 커다란 사랑 때문이다.

연약한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깨닫고, 영원한 사랑 앞에 겸손하게 뒤로 물러설 때,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게 그를 바라본다. 그러면 더 높은 곳으로 확실히 성장하게 하는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 이로써 너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은혜를 주는 지, 단순하게 설명해주었다. 그런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 단지 무엇이 필요한 지 깨닫게 해주었다.

겸손이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목표로 인도하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는 충만한 은혜를 베풀게 하고, 겸손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도록 움직이게 하는 덕성으로 나타난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모든 겸손으로 다가가듯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아버지 앞에 아이처럼 자신을 겸손하게 느껴야만 한다. 겸손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그에게서 자신의 은혜를 거둔다. 겸손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이고, 신성 앞에 자신을 끝없이 작게 느끼고, 신성을 실제 짐작하지만, 감히 말을 걸지 못하게 한다. 올바른 겸손은 단지 웅알거림으로 말하고, 올바른 겸손은 자신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왜냐면 올바른 겸손은 생각만으로도 자기가 창조한 존재를 없애 버릴 수 있는 최고의 존재 앞에 감히 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겸손은 말이 없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엎드리며, 그의 공허를 구한다. 겸손은 그의 자비로운 손에 의해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 사람들이 이러한 겸손을 깨닫는 곳에서, 심장 안으로 은혜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을 향해 다가가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는 가운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자신의 은혜로 채워준다. (1953년 1월 27일)

심장의 겸손은 혼의 최고의 장식품이고, 겸손은 동시에 영의 세계의 문을 연다. 겸손은 은혜의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 왜냐면 겸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겸손은 최고로 거룩한 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감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러나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모두 자신을 드린다. 충만한 겸손으로 창조주 아버지께 헌신하는 일이 그에게 도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왜냐면 강력한 사랑과 은혜의 물결이 혼을 모든 방해물을 물리치고, 아버지의 심장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 혼을 아주 친절하게 자신에게 이끈다. 왜냐면 겸손한 혼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심장의 겸손은 겉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꿰뚫어 볼 수 없는 존재 뒤에 자주 숨는다. 왜냐면 진정한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외로운 길을 소박하게 가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자기사랑이 전혀 없고, 항상 이웃들에게 크고 거룩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왜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얼마나 작고 불쌍한 존재인지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겸손은 넘치는 은혜를 받을 일이다. 왜냐면 겸손의 모든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과거의 죄를 혐오하기 때문이다. 혼은 앞으로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에게 향한 혼의 모든 전적인 의지를 알고, 가장 뜨거운 긍휼의 사랑 안으로 혼을 자신에게 이끈다.

아멘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푼다.

B.D. No. 7057

1958년 3월 6일

내 영은 연약한 자 안에서 강하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도 된다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람이 자신을 연약하고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고 내 앞에서 고백하고 나에게 내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는 심장에서 오는 겸손에 대한 일이다.

내 영은 단지 진실로 겸손한 사람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전적으로 자신을 나에게 드리기에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그에게 무엇을 선물할지를 나에게 맡긴다. 진실로 겸손한 사람은 충만한 은혜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이 은혜를 활용할 것이다. 그는 내면으로부터 동인이 되어 사랑을 행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일은 심장 안에 나를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불타오르게 하는 진정한 겸손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이미 근본성향이 교만인 내 대적자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만든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일이 그에게는 유일하게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내 편에서 이런 갈망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안의 영의 불씨가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 하나가 되길 추구한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영은 내 대적자의 성향인 교만이 있는 곳에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 왜냐면 내가 그런 곳에서 역사한다면, 내가 그와 협력하는 일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람 안에 역사할 수 있기 전에 그가 겸손하게 돼야만 한다.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진정한 겸손은 외적인 자세를 통해 표정을 통해 또는 이웃에 대한 외적인 태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단지 유일하게 심장의 겸손을 보고 내적으로 연약함과 죄악성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로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본다. 즉 한때 타락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본다.

모든 존재들은 실제 한때 빛나는 아름다운 상태에서 그들의 창조주인 나 자신을 기뻐했던 내 형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상태로 머물지 않았고 그들의 모든 성품이 반대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 상태에서 내 눈 앞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눈이 먼 상태에서 나에게 다시 저항했다. 왜냐면 그들이 내 대적자의 성품인 교만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존재가 그의 교만을 벗고 가장 깊은 겸손으로 변화되고 자신의 타락과 나와 떨어진 아주 먼 거리를 깨닫고 나를 갈망하면서 긍휼을 구하기 위해 두 손을 펼칠 때까지 나에게 귀환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손을 잡고 이 존재를 나에게 끌어드릴 것이다. 왜냐면 존재가 그의 겸손으로 내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사랑이 충만하게 자녀를 자신의 심장으로 끌어 드리고 이제 자신의 사랑의 증거와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아버지는 이제 다시 자신의 영을 부어줄 수 있게 된다.

영의 능력이 이제 볼 수 있게 나타날 것이다. 사람은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지 존재가 원래 초기에 소유했던 은사가 없이는 온전한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은사를 나타낼 것이고 사람은 빛과 능력이 충만할 것이다. 다시 말해 특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일반 사람이 소유하지 못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의 하나님과 분명한 연결에도 불구하고 가장 깊이 겸손한 가운데 머물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성품들 중에 하나가 겸손이기 때문이다. 이 겸손이 단지 타락을 통해 반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로 너희 안에서 내 영이 역사하기를 원하면, 너희 사람들은 항상 진정한 겸손을 추구해야만 한다. 왜냐면 아직 교만의 불씨 하나라도 자신 안에 가진 사람은 내 대적자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적자의 지속적인 노력은 그를 계속해 자신의 사슬로 묶어 두려는 일이 될 것이다.

세상이 대적자에게 그의 일을 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사람들이 항상 더욱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고 작고 낮은 모든 것을 내려다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가 대적자에게 속했다는 확실한 증거이다. 너희는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너희 자신을 진실로 올바른 겸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내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서 강하게 되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의식해야만 한다. 왜냐면 나는 겸손한 사람에게 내 은혜를 베풀기 때문이다.

아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

B.D. No. 3269

1944년 9월 25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외에는 더 이상 원하는 일이 없다. 이런 완전한 의지의 복종은 의지의 부족이나 의지의 연약함과 아무 관련이 없고, 오히려 강한 의지를 요구한다. 즉 자신을 스스로 극복하려는 의지를,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고 자신의 모든 갈망을 뒷전에 두는 의지를 요구한다. 이런 의지를 전적으로 드리는 일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다. 즉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하고, 인간이 자신에게 바람직해 보이는 모든 일을 희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지의 항복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한 증거이고, 특별하게 성숙한 정도도의 표시이고 또한 인간이 온전하게 되는 길에 들어섰다는 표시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붙잡으면, 그가 자신의 혼이 성장하는 길로 멈출 수 없이 전진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린 의지는 전적인 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인도하고, 그가 진실로 올바른 길을 인도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지가 스스로 일하는 가운데 머물고, 사람이 단지 항상 옳은 일을 원하고 행하는 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린다면,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일을 위해 자신의 연약한 힘을 사용하도록 허락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가 매일 매시간 자신을 하나님의 인도에 맡긴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그를 붙잡고, 인도하고, 그의 길과 그의 생각을, 그의 말과 그의 역사를 이끌어 준다.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단지 자신들의 의지를 버릴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들의 의지가 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하나님의 대적자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할 자세가 되었다면, 그는 이 땅의 목적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의 삶은 단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그는 가장 높은 온전함까지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더 깊어지고 긴밀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종속시킨 사람은 또한 평온하고, 염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이제 항상 비록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 사람에게 세속적으로 불리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영적인 일을 자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를 돌보지 않고 놔두지 않는다. 왜냐면 하나님이 자신 안에서 아버지를 보는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모든 사랑의 힘으로 자신에게 이끌고, 인간의 의지가 더 이상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의 수단은 진실로 성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하려는 소원이 가장 깊은 심장에서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인간은 가장 깊은 겸손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껴야만 하고,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창조주로 인정해야만 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의 피조물들의 아버지로 인정해야만 하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자신을 헌신해야만 한다. 그는 기

뽀이든 슬픔이든 아버지의 손에서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의 의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지 않고, 그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종속시키게 되고, 그의 이 땅의 삶은 그의 혼을 위해 성공하게 된다. 왜냐면 그가 더 이상 혼자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의 길이 절대로 오류에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첫 번째 요구이고, 사람이 자신의 혼이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성취시키지 않고 놔둘 수 없는 요구이다. 왜냐면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동안에는 그는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기도를 도피처로 삼지도 않고, 그러면 그는 그의 혼의 성장을 해주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게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지에 종속시키기 위한 의지의 힘을 모으기 전에 먼저 자기 사랑을 극복해야만 한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의지가 완성에 이르게 보장한다.

B.D. No. 7566

1960년 4월 3일

너희가 내 뜻을 성취시키려고 추구하면, 나는 내 뜻을 너희 심장 안에 넣어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단지 내적으로 재촉받는 것과 원하는 것이 너희를 정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너희가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올바르게 될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려고 추구하는 모든 사람과 내 사랑이 함께 하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것이다.

내 돌봄이 매시간마다 그에게 향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매일 염려할 것 없이 살 수 있다. 그는 항상 혼의 완성을 위해 기여할 것이다. 그는 이 땅의 삶을 헛되게 살지 않게 된다. 왜냐면 나에게 향한 의지가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들을 완성으로 안도한다는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내 도움을 받지 못 할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믿고 내가 그를 받아 들이길 원하고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 어떤 사람도 버림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향하는 모든 생각은 그가 나를 믿음을 증명하고 그의 혼이 자신의 창조주요 영원한 아버지를 향한 갈망을 증명한다. 이 땅의 세상을 떠나 내 나라를 향한 모든 생각은 자신의 원래 상태를 다시 추구하는 혼의 의지를 증명한다.

왜냐면 혼은 자신의 출처를 인식하고 다시 자신의 출처로 돌아가길 원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생각을 알고 있고 진실로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이런 의지를 지원해줄 것이다. 나는 혼이 나를 향한 갈망을 높이기 위해 내 사랑의 힘을 높이기 위해 혼이 내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나는 한번 자신의 의지를 나에게 향한 모든 사람을 나를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 깨닫고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접할 것이다. 왜냐면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부족함과 합당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사랑이 초기에 가장 깊은 겸손 가운데 뒤로 물러서 있지만 나를 향한 사랑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겸손은 사람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고백이다. 왜냐면 겸손은 원죄의 반대이고 존재를 한때 타락하게 만든 거만의 반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를 최고로 높은 가장 온전한 존재로 깨닫고 나를 사랑하기에 자신이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내 모든 사랑이 그에게 속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을 항상 단지 영의 나라로 향하게 하라. 너희의 생각이 나에게 향하는 길을 택하게 하라. 나는 너희의 의지가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 있다. 나는 진실로 너희를 더 이상 놓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단지 유일하게 너희의 의지가 중요하다.

왜냐면 너희가 인간으로 육신을 입는 초기에는 의지가 아직 너희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의지가 그를 떠나 나에게 향하게 바뀌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돌보기를 너희가 원하면, 즉 너희의 의지가 의식적으로 나에게 향하면, 너희가 나에게 속하고 나에게 속해 남길 원하면, 내가 이미 너희를 붙잡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의 운명은 진실로 확정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타락하게 놔두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나에게 이끌고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스스로 귀향할 때까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인 나와 연합이 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가 이제 영원히 얻은 너희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너희에게 향해 있고 향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

B.D. No. 8627

1963년 9월 26일

너희는 항상 단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너희의 지도자로 항상 너희들 인도하고 너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정해 주는 동행자로 만들으라. 그러면 진실로 너희의 이 땅의 삶은 너의 자신을 위해 너희 이웃을 위해 축복이 넘치게 될 것이다. 왜냐면 항상 너희 안에서 내 의지가 역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의 의지를 내 의지 아래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김 없는 나에 대한 헌신이 너희가 온전함에 도달한다는 가장 확실한 보장이다. 왜냐면 모든 너희 안에 있는 반발이 무너졌고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를 다시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데에 더 이상 방해받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전적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안의 사랑이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이제 너희의 이 땅의 삶이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삶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자기 사랑이 지배를 하면, 너희가 나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왜냐면 그런다면 너희는 항상 너희 자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너희 성품은 거만함으로 나타날 것이다. 반면에 나에게 헌신하는 것은 겸손의 행위이고 너희의 자기 사랑을 이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으로 바꾼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할 때 너희가 내 성품이 사랑이요, 지혜요,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나에게 헌신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관계가 될 것이다. 너희는 원래 상태를 다시 만들게 된다. 너희는 다시 축복에 도달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영원한 질서의 법칙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너희는 다시 사랑이 되었다. 너희는 내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 자녀로서 이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항상 또 다시 나는 너희의 사랑을 너희의 남김 없는 신뢰를 너희의 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내 성품에 관해 계시를 한다.

너희는 내 성품에 관해 진리에 합당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는 내 끝없는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으로부터 생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랑이 항상 영원히 너희에게 유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갈망함을 이해할 것이다.

만약에 너희의 이런 내 큰 사랑을 믿으면, 너희는 이 사랑에 응답을 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응답하는 사랑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이다. 너희가 인간으로써 그러나 아직 어두운 영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자주 잘못 된 생각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랑으로 너희에게 다가가는 나를 두려워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못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내 엄격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모든 위험 가운데 그에게 도피해도 되는 아버지의 자녀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내 관해 잘못됨 개념이 주어졌다. 너희에게 전능하고 공의로운 존재로 소개되었고 내 끝없는 사랑은 아주 적게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자녀로서 절대로 자녀를 실망시키지 않을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너희는 너희의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더욱 빠져서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한다. 그리고 너희는 항상 내 대적자에 의해 강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면 그는 너희의 나를 믿는 어떠한 믿음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사랑 자체인 존재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내가 너희 안에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 감동시키려고 함을 믿을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너희가 이미 영원한 시간 동안 없이 지내야 했던 축복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지 때문이다. 나는 질서의 법칙에 해 행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반항하는 동안에는 너희가 내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나는 너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런 동안에 너희는 스스로 내 사랑의 흐름에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이다. 모든 저항은 내 사랑의 비추임의 효과가 없게 만든다. 너희가 다시 사랑이 되면, 비로소 너희는 내 사랑의 비추임에 축복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나를 위해 얻은 이상, 너희를 더 이상 놓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더 이상 나로부터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는 이를 이를 것이다. 언젠가는 너희가 스스로 나에게 오는 길을 택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손을 벌릴 것이고 너희는 더 이상 놓치지 않기 위해 이 손을 잡게 될 것이다. 왜냐면 너희의 진정한 고향은 빛과 축복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집은 바로 나에게 있다. 보증하건대 너희는 언젠가 너희의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1963년 9월 26일)

그러므로 나는 항상 또 다시 너희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땅에서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다시 전파해야 한다. 그는 이웃에게 사랑을 하게 격려해야 한다. 스스로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왜냐면 사람의 심장 안에 사랑이 한번 불타오른다면, 그는 자신을 나에게 속하게 한다. 그러면 나에게 대한 전적인 헌신이 뒤따를 수 있다. 그의 헌신은 모든 영원까지 그에게 축복된 삶을 보장한다.

아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

B.D. No. 7308

1959년 3월 14일

섬 기려는 의지는 겸손하게 되려는 것이다. 이 의지는 사탄의 자식으로써 사람들에게서 아직 볼 수 있는 그러므로 그가 모든 능력으로 싸워야만 하는 교만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승리가 시작되게 하는 것이다. 교만은 지배하기를 원한다. 거만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인다. 교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속박하고 자신을 섬기게 강요하기 원한다.

교만한 사람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다. 그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교만한 영에 진지하게 대항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가 자신 안에서 섬기려는 의지를 가질 때 그는 교만한 영에 대항한다. 그가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를 진실로 자유롭게 한다.

왜냐면 그러면 그는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다른 영역으로 들어서기 때문이다. 겸손이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때문이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 그는 "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 겸손은 항상 돕고 섬기려는 의지를 통해 증명 된다.

사람이 겸손하게 살면, 그가 모든 거만에 대항해 싸우면, 그는 자신을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의 의지의 연약함과 실수를 의식하고 그의 모든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이 아주 깊게 낮은 것을 의식하면, 그는 전적으로 다른 성장단계에 들어선다. 그는 이에 합당하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그는 진실로 겸손하게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그의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떤 연극이나 외적인 형태가 아니고 깊은 내적인 겸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겸손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한다. 이로써 부족함을 벗어나 겸손한 사람이 자신을 심장으로 갈망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작업을 하려는 그의 의도가 강해진다.

겸손한 사람은 이미 내 대적자로부터 돌이키는 일을 이뤘다.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비록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많은 작업을 해야만 할지라도 항상 대적자로부터 돌이킨 것을 전제로 하는 온전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이 이제 행하는 섬기는 사랑은 곧 그의 모든 성품을 사랑으로 바꾼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버지의 심장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 영원한 사랑과 연합되고 이로써 온전함에 도달한다. 사람에게 진정한 겸손이 부족한 동안에는 그의 성장하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왜냐면 진정한 겸손이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권을 증명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확실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사람 안에 아직 불씨만큼의 교만이라도 남아 있는 동안에는 그는 연합이 되기까지 아직 먼 길에 있다. 왜냐면 이런 동안에 항상 대적자가 참여하여 그에 대항하는 싸움을 모든 의지와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싸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승리를 주는 섬기는 이웃 사랑에 빠지면, 그는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자신의 덕스럽지 못한 점과 죄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가 자신에 대해 솔직하면, 그는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현저하게 멀어질 것이다. 이런 비판적인 자기 성찰이 그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깨닫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에게 은혜와 공활을 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자신의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활을 받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싸우거나 섬기거나. 거만. 겸손.

B.D. No. 2923

1943년 10월 13일

사람이 성숙하게 되기 위해 저항을 극복해야만 한다. 왜냐면 그가 싸우거나 섬길 때, 단지 그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존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자신이 너무나 강력해서 존재가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또한 하나님 없이도 전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다는 잘못된 가정 하에 일어났다. 그러므로 영적인 존재가 자신의 힘을 키워 하나님 위에 자신을 두기 위해 하나님 곁에서 통치하기를 원했다. 존재는 이제 길을 거꾸로 가야만 하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기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아야만 하고, 이제 자신에게 부족한 힘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구해야만 한다. 존재는 가장 겸손한 심장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고, 자신과 함께 하는 존재들을 섬겨야만 한다.

존재는 투쟁해야만 하거나 섬겨야만 한다. 즉 자신을 극복해야만 하고, 자신의 오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하게 되어야만 하고, 이제 자신이 한때 소유했고, 자신이 소유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증명한 힘을 얻기 위해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힘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증명을 해야만 하고, 이를 증명하는 일은 단지 싸우는 일과 섬기는 일을 통해 할 수 있다.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위로 성장한다. 그러나 인간의 지배욕이 너무 강하게 발달하면, 그는 이에 맞서 싸워야만 한다. 즉 자신에 대항하는 싸움을 싸워야만 한다. 그는 또한 하나님에게 행했던 오만함을, 자신의 이웃에게 섬기는 사랑을 베풀면서 제거해 나가야만 한다.

이런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 대해야 하고, 인간 아래에 있는 것으로 대하지 말아야 하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것으로 여겨야 한다. 사람이 지배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가 그런 본성대로 되기 위해, 자신을 아주 잘 극복해야만 하고, 자신이 다스리기 원하는 곳에서 섬겨야만 한다. 그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곳에서 투쟁해야만 한다. 그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높이 성장할 수 있다. 왜냐면 자신의 성품이, 많은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자신이 성숙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한때

가졌던 오만함을 극복하기 까지는, 그가 작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할 때까지는 그는 자신을 아직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거만.

B.D. No. 5341

1952년 3월 21일

이웃사람들보다 우위에 서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비로소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일을 실천하는 것이고, 단지 그럴 때 사랑을 행하여 모든 오만함을 제거한다. 사랑이 이웃을 형제로 여기도록 가르치고, 세상적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내 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든 계급 또는 신분의 차이를 보상한다. 섬기는 사랑이 너희 안에 참된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섬기는 이웃 사랑을 하는 가운데 너희는 예수의 참된 추종자가 된다. 예수는 인간으로서 너희를 위해 올바른 삶을 모범을 보이며 살았고, 진실로 모든 충만한 빛과 힘과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힘을 사용하지 않았고, 지배하지 않았고, 그의 이웃이 자신을 섬기게 하지 않았다. 그는 가장 깊은 사랑과 겸손으로 자신의 형제들을 섬겼다. 이런 일이 그를 세상들과 셀 수 없이 많은 피조들을 다스리는 자로 높였다. 왜냐면 나 자신이 그의 걸 형제 안을 거처로 삼았고, 그를 빛과 힘으로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오만함과 지배욕으로 가장 깊은 곳으로 타락한 자의 특징이다. 만약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높인다면, 너희는 자원하여 타락한 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유혹을 받도록 허용하고, 그의 자질과 그의 악을 받아들이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너희를 너희 이웃 위로 높이지 말라. 너희의 이웃은 진실로 너희의 형제들이다. 왜냐면 너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를 위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기 때문이다.

오만함은 너희를 쉽게 타락하게 한다. 왜냐면 영적으로 오만한 사람은 더 이상 영원한 사랑인 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면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참된 사랑은 겸손과 하나이지만 오만함과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섬기는 일이 항상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증거하고, 이는 이웃 사랑으로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 너희가 거만하게 다스리기보다 겸손하게 섬긴다면, 너희는 진정으로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는 오만함으로 이 땅의 권세를 얻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오만함은 내 대적자의 일부이고 그러므로 단지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고, 이런 일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알아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서 온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이웃 사랑은 분명히 세상의 재물과 명성과 권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웃 사랑은 불멸하고 언젠가 내 나라에서 혼이 정산을 받을 영적인 가치를 얻게 한다. 이런 가치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웃을 억압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빛과 풍부한 권세를 얻게 한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짐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의미에서 불의하게 얻은 것이 너희를 위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믿지 말라. 그러나 지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취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취하고, 자신의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 반면에 섬기는 사랑은 제한이 없게 주고, 굶주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준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한 겸손이고, 그러므로 내가 기뻐한다. 섬기는 사랑은 진정하게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확실하게 나에게 인도하고, 영원한 아버지께 인도한다.

아멘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

B.D. No. 5913

1954년 3월 24일

너희가 싸워야만 하거나 또는 섬겨야만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 싸움은 너희 이웃 사람을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고 또한 연약하고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여 그를 이기려는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너희 자신에 대한 실수와 도덕적인 결함과 죄악과 정욕에 대항하는 싸움이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고 너희의 모든 능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너희가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면, 너희에게 영광스러운 유익이 된다.

그러나 너희는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 다른 길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길을 택할 수 있다. 너희가 섬기는 일을 하면, 너희는 동시에 너희 자신에 대해 승리하게 된다. 왜냐면 너희가 자유의지로 너희 성품을 바꾸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제 모든 실수와 부족함을 버리기 위해 필요한 힘을 사랑을 행하는 일을 통해 얻게 된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넘치는 은혜를 받는다. 왜냐면 첫번째로 너희가 이제 거만함을 극복했고 너희가 겸손하게 되었고 이제 제한이 없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사랑으로 섬기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대항하는 싸움을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사랑으로 섬기는 일은 자신에게 대항하는 다른 형태의 싸움이지만 그러나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정욕에 대한 모든 사랑 없음에 대해 승리하게 한다.

싸우는 일이나 또는 섬기는 일을 통해 사람의 성품이 변화가 된다. 그러나 섬기는 일이 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쉽다. 자신의 이웃을 항상 섬기고 형제가 되는 사람은 계획적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목표를 정하는 사람보다 아주 적은 저항을 받는다. 왜냐면 계획적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목표를 정한 사람은 자신의 이웃을 항상 섬기고 형제가 되는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베푸는 인내와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싸우거나 섬겨야 한다. 왜냐면 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어려운 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랑의 무기로 싸우는 싸움은 항상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 진실로 더 강한 사람이고 항상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받기 때문에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한다. 그러나 싸우는 사람은 실제 또한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한다. 그가 기도하면, 그에게 은혜와 힘이 공급되어, 그는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사랑으로 섬기고 어려운 싸움 후에 그의 자기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웃사랑으로 변화되고 그가 사랑을 행함을 통해 은혜와 능력을 얻으면, 비로소 그의 성품의 변화가 이뤄진다.

아멘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

B.D. No. 3682

1946년 2월 10일

바른 기도의 속성 중 하나는 진정한 심장의 겸손으로 기도하는 일이다. 이런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왜냐하면 나에게 대한 겸손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결코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누구든 심장에서 나온 사랑으로 나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단지 겸손하게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나는 그의 사랑에 답변하고, 그에게 나의 은혜를 선물한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는 단지 두려움에서 나를 향해 외치는 외침일 뿐이고, 그가 실제 심장으로 나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아직 사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자신이 그의 이웃에게 아직 사랑을 행하지 않았고, 나로부터 어떠한 사랑이나 은혜도 영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성취되지 않는 흔한 이유이다. 왜냐하면 내가 겸손한 심장을 원하고, 겸손이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심장의 겸손은 모든 거만한 생각들을 물리친다. 또한 겸손은 사랑이 없는 행동을 막아 준다. 왜냐하면 사랑과 겸손은 함께 가고, 서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한 심장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는 이 겸손한 심장에 은혜와 사랑을 넘치게 부어 준다. 깊은 겸손은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에 있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외적인 유별난 행동을 항상 싫어하고, 유일하게 기도를 통해, 나를 향한 겸손이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이웃에 대한 겸손은 섬기는 이웃사랑을 통해 표현된다. 그들의 심장이 겸손함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이 외적인 태도를 통해 겸손을 가장한다. 그러나 나는 혼의 근원을 살피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외적으로 겸손한 모양을 나타내는 사람에게서, 외적으로, 특별한 행동이나, 태도나 또는 겸손하게 들리는 말을 통해, 이웃사람이 겸손을 깨닫게 하는 사람에게서 나의 은혜의 증거를 희귀하게 찾아볼 수 있다.

나는 단지 심장의 겸손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 자신을 주장하며, 겸손한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 지라도, 나는 그들을 도와준다. 그러나 항상 이웃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들어내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종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주님이 명한대로 행한다. 그는 강요받지 않고 나의 뜻에 순종한다. 그러므로 그가 나에게 기도하면, 마찬가지로 그의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하는, 어린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부탁과 같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의 걱정거리를 아뢴다. 어린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고, 부탁한다. 이는 겸손의 표시이며, 부탁을 들어줄 분과 그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는 표시이고, 어린 자녀가 구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은 채로 머물지 않게 된다.

올바르게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일이 항상 성취될 것이다. 구하라, 그러나 요구하지 말라. 심장으로 깊이 겸손하게 머물라. 그리하여 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쳐 흘러갈 수 있

게 하라. 나는 결코 외적인 모양이 필요하지 않고, 또 외적인 모양이 결코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 왜냐면 외적인 모양은 쉽게 아주 진실하지 못한 것들을 감추는 덮개가 되고, 속이려 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심장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속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주시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 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라. 진정한 심장의 겸손이 너희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가 풍성한 은혜로 보답할 수 있는 장식이 될 것이다.

아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B.D. No. 5805

1953년 11월 14일

○ **□** 헤와 능력을 구하는 일을 잊지 말라. 왜냐면 이런 기도가 영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너희의 의지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도는 너희의 부족함과 온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너희는 너희에게 무제한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너희의 자유를 빼앗지 않고 모든 온전하게 하는 일을 막지 않기 위해, 너희 의지와는 반대로 너희에게 은혜의 능력을 줄 수 없다. 너희가 나의 도움이 없이는 높이 성장할 수 없음을 잘 알고, 너희가 나를 모든 일이 가능한 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를 아버지로 여기고 도움을 청하고, 이제 나와 너희의 자녀 관계를 기억하면, 너희는 너희에게 은혜가 넘치게 주어질 수 있는 선행조건을 갖춘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반박할 수 없게 높이 성장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너희는 한때 나를 떠난 너희 자신의 죄로 인해 무능력하다.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아주 깊어, 나는 너희 죄를 눈감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영접하려는 심장을 가진다면,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은 선물을 주기 원한다. 너희는 너희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통해 나의 선물을 받으려는 의지를 알린다. 너희는 이제 측량할 수 없이 받을 수 있고, 나는 실제 너희의 기도가 없이도 은혜의 선물을 보내 준다. 그러나 너희가 단지 자신을 열고, 어떤 방식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때, 나를 거절하지 않으면, 이 은혜의 선물이 너희에게 효력을 나타낸다.

너희의 전 생애는 내 사랑의 증거하는 일어나는 일들과, 인도해주고, 나를 알게 해주는 일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일들은 은혜로 평가할 수 있는 일이다. 너희가 이런 일들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너희가 너희 모두에게 손을 펼쳐 너희를 붙잡으려는 나의 손길을 깨닫고, 너희의 눈을 나에게 향하고, 너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려는 나의 손을 잡으면, 너희에게 성공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너희가 단지 항상 나의 은혜를 구하면, 너희는 확실하게 너희 눈을 나에게 향하게 한 것이고, 내 손을 잡은 것이다. 왜냐면 그러면 내가 너희가 실패가 없이 너희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줄 은혜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이 일이 축복이 되도록, 나와 내 은혜를 의지하는 일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시작과 너희의 끝이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지속적인 조연자요 동행자가 되게 하라. 내가 전능하고, 지혜롭고, 충만한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게 하라. 이로써 너희가 겸손하게 구하는 것을 너희에게 항상 베풀어 줄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게 하라.

힘과 은혜를 구하는 기도. 교만. 겸손.

B.D. No. 8589

1963년 8월 18일

너희 자신을 위해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과 영의 나라의 모든 혼들을 위해 너희가 내 은혜를 계속하여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이 은혜를 구하면, 너희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부탁은 항상 겸손의 행위이다. 왜냐면 이를 통해 너희는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런 연약함 가운데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해주기를 나에게 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연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베푼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즉 이웃이나 또는 저세상에 있는 혼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면, 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의 행위이다. 왜냐면 너희는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마찬가지로 연약한 이런 혼들을 위해 능력을 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사랑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부여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영적인 부탁은 진실로 너희에게 항상 성취될 것이다. 너희는 항상 단지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부탁할 것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단지 나로부터 힘과 은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온전하게 되길 갈망하고 이를 위해 너희는 나에게 도움을 구할 것이다.

너희가 한때 너희 스스로를 강하게 여기고 나와 내 능력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로부터 타락했다는 것을 너희가 생각해 본다면 너희의 자유의지로 온전함을 버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사람으로 육신을 입는다.

이런 귀환은 나로부터 타락할 때처럼 반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너희는 교만했고 넘치는 능력을 가졌던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가장 깊은 겸손 가운데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너희가 나에게 능력을 주기를 구하면서 너희의 연약함 고백해야 한다. 너희가 자유의지로 한 때 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가 벌어들이지 않은 너희 스스로 한때 버렸던 선물인 은혜를 나에게 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힘과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를 아주 기뻐하며 성취시켜 준다는 것을 믿어라. 너희가 다시 온전함에 도달하는 것이 단지 나와 연합이 됨으로써만 주어 질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 다시 나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 원하는 것이다. 너희의 부족함과 너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일이 이미 내가 너희에게 충만하게 선물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또 다시 나에게 힘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 이런 구함은 내가 너희에게 거절할 수 없이 성취시키는 영적인 기도이다. 왜냐면 내 축복은 내 피조물들에게 그들이 위로 성장할 수 있게 나에게 계속하여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게 끊임없이 사랑의 힘을 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왜냐면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너희가 특별하게 사랑을 행해 스스로 능력을 벌어들인 않으면, 너희 자신의 힘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으로 그리고 진리 안에서 드

리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이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한다. 왜냐면 나는 항상 또다시 겸손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는 것을 단지 겸손한 심장이 이런 기도를 나에게 드린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나는 항상 단지 너희에게 이런 기도가 성취될 것임을 보장한다. 너희가 이런 기도를 통해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 원함을 고백하면, 이로써 너희는 이미 이 땅의 의지의 시험인 너희가 한때 교만과 지배욕을 가지고 떠났던 나에게 자유의지로 들어오는 일에 합격한다.

도움을 구하는 자는 교만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나에게 스스로 복종한다. 그의 겸손 때문에 나는 이제 측량할 수 없이 그에게 나눠 줄 수 있다. 진실로 어느 누구도 내가 아주 기뻐하며 듣고 성취시킬 이런 기도를 나에게 드리는 사람이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힘과 은혜를 구하려는 생각이 너희 안에서 떠오르면, 너희는 나를 너희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으로 깨닫는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던 간에 상관 없이 긴밀한 기도가 증거하는 나와 연결이 이미 됐다. 힘과 은혜는 영적인 재산으로써 내가 절대로 이를 구하는 자에게 금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기도가 그의 겸손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내가 약속한 것처럼 나는 항상 겸손한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선물해줄 것이다.

아멘

의지가 은혜의 받는 일을 정한다. 은혜.

B.D. No. 5595

1953년 2월 6일

내 의지가 이 땅과 저 세상에서 너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너희 의의 의지가 정한다. 어떤 사람도 내 은혜에서 제외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나에게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의 의지가 그가 내 은혜를 얼마나 사용할지 여부를 정한다. 영을 추구하고, 깨달음 안에 선 사람이 단지 영적인 수준에 도달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은혜의 선물을 활용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펼친 내 손을 잡을 자세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저항하지 않는 일은 그들의 의지였고 그들이 손을 뺐었을 때 내 손을 잡을 준비가 된 일은 그들을.

모든 사람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을 낮은 영적인 상태에서 높은 영적인 상태로 끌어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내 손을 펼친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여 그들을 내 의지를 따르는 사람이 맞이하는 운명의 상태로 만들어줄 수 없고, 나는 그들을 강요받는 상태에 처하게 할 수 없고, 강요받는 상태에 처하게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강요하는 상태는 영원한 질서의 법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고, 강제로 성장하는 일이 혼이 올바르게 성숙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에게 측량할 수 없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 내 은혜를 받아드리는 일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나아지게 한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내 피조물을 차별 대우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자주 원하는 만큼 자주 받는다. 그러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영적인 추구도 할 수 없고, 그는 어떤 영적인 깨달음도 받지 못한다.

그의 의지가 다시 유일하게 사람이 사랑을 행할지를 정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미 그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기 때문이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미 너무 가까워서 거절하려는 의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는 모든 은혜를 사용하고, 그는 내가 그에게 주는 모든 도움을 행복하게 느끼고,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는다. 사람을 사랑을 행하게 만들거나 또는 사랑을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의지이다. 그러므로 의지가 은혜를 받는 일을 정한다. 왜냐하면 은혜의 흐름을 받으려면 모든 저항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원하면 성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하면, 그에게 항상 힘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쉬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강한 극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항상 저항이 훨씬 더 크고, 저항하는 정도를 전적으로 사람의 의지가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또한 성취하기 너무 어

려운 일을 요구하지 않고, 나는 단지 저항을 포기하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의지가 결정적이다.

그러나 일단 저항을 포기하면, 다른 모든 일은 쉽게 된다. 왜냐면 내 은혜가 끊임없이 흐르고, 전에는 불가능했던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너희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이 은혜이고, 너희가 아직 이 땅에서 사는 매일이 은혜이다. 은혜는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생명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고, 은혜는 내 말씀을 통해 너희에게 제공되는 모든 도움이다. 왜냐면 너희에게 내 말씀과 내 뜻을 알려주는 지식과 너희의 삶의 과제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고, 너희가 이런 지식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따라서 혼의 성숙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한 없이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러나 너희의 의지에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실제 구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러나 너희는 또한 언젠가 너희의 뜻을 바꾸고, 저항을 포기하고, 나와 내 사랑을 갈망할 때까지 끝없이 불행한 가운데 머물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효력이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B.D. No. 5104

1951년 4월 13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내 은혜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왜냐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축복을 받도록 돕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혜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를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에게 모든 도움을 구해야 한다. 너희는 또한 사랑을 행하는 삶을 통해 스스로 은혜를 얻어야 하고, 이 땅에서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로써 너희 모두에게 제공되는 내 은혜의 보물을 받는 후보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 은혜의 보물을 의식적으로 요청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은혜의 보물이 너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않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은혜의 보물을 관리하는 분이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은혜를 얻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로써 너희가 혼자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 도달해야 한다. 나는 내 피조물을 사랑하고 그들이 살기를 원하고, 그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을 위해 힘이 필요하고, 혼의 생명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혼에게 힘을 공급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이 멸망하고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힘은 단지 빛과 힘의 영원한 원천인 나를 근원으로 하는 곳에서 나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너희는 나에게 향하여 힘을 구하거나 사랑을 행함으로 힘을 얻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사랑을 행함으로 나와 연결을 이루고, 영원한 사랑인 나에게서 힘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나는 힘을 나눠주고,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을 제공한다. 왜냐면 그가 요청하는 일이 그에게 끝없이 공급해주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준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은혜의 선물은 너희가 즉시 직접 힘을 받을 수 있는 선물인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은 내 사랑의 힘이 발산된 것으로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내가 이 말씀에 내 축복을 부여했고, 이 말씀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내 말씀이 자신에게 미치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너희 모두에게 많은 힘이 필요하고, 내가 너희의 받으려는 의지가 없는데도 내 말씀을 너희에게 전해주는 일은 특별한 은혜이다. 그러나 너희가 너희의 연약한 상태를 의식하고 내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도움을 구하고 희망할 때, 내 말씀이 너희에게 효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이 너희에게 힘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말씀은 너희에게 주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면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이 심장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게 하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힘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 말씀이 나와 너희 인간들 사이를 연결시킨다. 너희가 너희의 힘만으로 나에게 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내려간다. 왜냐면 너희가 아직 연약한 동안에는 나에게 도달하는 길이 끝없이 먼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사랑의 힘이 너희를 돕는 곳에서 너희가 쉽게 너희의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나 내 은혜를 경멸하고 따라서 위에서 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가 거부하는 일이 그가 불신자라는 볼 수 있는 증거이다. 왜냐면 그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바닥에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거부했을 때 나의 대적자가 그를 바닥으로 내던졌다. 나를 부인하는 일은 내 말씀을 나에게서 온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고, 사람이 자신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창조주에게 순복하지 않는 일이고, 그가 긍휼의 손을 잡지 않는 일이고,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일이다. 그러므로 그는 은혜와 힘을 받을 수 없고, 그는 연약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갈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는 오만함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죄가 그를 바닥으로 짓누른다. 그러면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왜냐면 그가 자신을 돕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면 내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B.D. No. 7877

1961년 4월 23일

내 은혜와 긍휼을 신뢰하라. 너희의 죄짐을 내 십자가 아래로 옮기라. 비록 너희가 아주 많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 용서를 보장했다. 나는 너희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 사랑은 아주 커서 너희를 잃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이 너희를 위해 모든 죄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죄를 인식하고 고백해야만 한다. 너희는 스스로 죄책감을 가져야만 하고 이로부터 자유롭게 되려고 해야만 한다.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를 감싸고 너희에게 다시 비취줄 수 있다. 왜냐면 너희가 영원히 영원 동안 나에게 행했던, 모든 사랑이 주는 효과를 없게 만든 너희의 저항을 꺾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비로소 작다는 것과 죄악 된 것을 느낄 때 너희는 모든 겸손함으로 나에게 나와 너희를 다시 영접해주기를 구한다. 그러면 너희는 자유의지로 나에게 귀환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 땅에 거하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했다. 너희를 다시 귀환하게 한 것은 내 은혜와 긍휼이다.
(1961년 4월 23일)

왜냐면 너희가 내 사랑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 끝없는 사랑이 너희를 버려둘 수 없고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은 너희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었다. 왜냐면 사랑은 어떠한 강요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자유를 오용한 것이 내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너희가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더 이상 역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의 자리를 내 은혜와 긍휼이 채웠다. 긍휼은 너희를 끝 없이 타락하게 하지 않았고 은혜는 너희를 도왔다. 다시 말해 내가 너희 자신에게 나를 향해 성장하기 위한 시도를 할 능력이 없는 동안 너희가 다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너희를 돕는 수단을 사용했다.

너희는 너희의 거부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움을 벌어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운명을 긍휼히 여겨, 너희의 의지에 반하여 너희에게 향한 일은 은혜이다. 너희가 다시 자유의지로 나에게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사랑이 너희에게 비추어 줄 수 있고 한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축복되게 느낄 수 있게 될 때까지 너희는 이 은혜에 의존할 것이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너희의 불행한 상태는 너희 자신의 잘못이다. 이 상태는 너희의 의지와 반대로 바뀔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지를 변화시키는 일이 은혜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는 일은 내 타락한 존재들을 향한 깊은 긍휼이 이룬 일이다.

타락한 존재는 스스로 현재의 형편을 만들었고 영적인 축복을 잃었고 빛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넘겨준 내 대적자에 의해 묶임을 받고 있다. 왜냐면 내 너희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관심하게 너희에게 등을 돌리고 너희를 대적자에게 맡길 수 없고 내 목표는 너희를 다시 축복된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계속하여 너희에게 도움을 준다. 내 사랑은 너희가 이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일할 것이다. 왜냐면 사랑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진실로 사랑이 어떻게 사랑의 목표에 도달할지 안다. 내 사랑은 항상 또 다시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위해 구속사역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알려 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은혜를 받아 드릴 자세가 되었으면, 너희에게 넘치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너희에게 항상 또 다시 소개될 것이다.

왜냐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너희가 영원히 영원 동안 나를 대적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은혜와 긍휼은 너희를 따라 갈 것이다. 내 사랑은 자신을 위해 너희를 전적으로 소유하기까지 너희를 얻으려고 한다.

아멘

너희가 혼의 성숙에 기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빛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 반복해 나에게 안내와 경고와 권면과 가르침이 필요하다. 나는 너희에게 내 말을 통해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모든 방식으로 도움을 줄 것이고 너희 인생의 운명을 인도해 너희의 의지가 내 의지에 동의하는 올바른 방향을 향할 수 있게 너희가 계속하여 너희의 영적인 성장에 도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을 것이다.

왜냐면 그럴 때 비로소 너희들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을 향하게 되고 너희가 올바른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 힘으로는 전적으로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다. 왜냐면 너의 의지가 연약하기 때문이다. 아직 너희가 내 대적자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못한 동안에는 대적자가 너희를 사슬로 묶고 있는 동안에는 대적자가 너희의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너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로써 너희에게 강화 된 의지의 은혜를 구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사슬을 풀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가장 큰 죄를 해결했다. 큰 죄의 결과는 너희의 의지가 묶임을 받고 연약해진 것이다. 너희가 이제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의지의 연약함을 극복한다. 너희는 이제 예수의 구속을 통해 내 의지 안에서 너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다. 너희가 너희를 대적자로부터 구할 수 있는 한 분을 찾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가 나를 세상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안에서 나 자신이 인간이 된 한 분을 부르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헛되게 될 것이다. 왜냐면 이런 부름을 통해 너희는 다시 너희가 한때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을 실패함으로 인해 너희가 불행한 상태인 깊은 곳으로 타락했던 나를 다시 인정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너희의 이 땅의 삶은 성공하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동안에는 너희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축복될 수 없다. 너희는 연약하며 빛이 없는 존재로 남게 된다. 이런 상태는 아주 고통스러운 상태이다. 왜냐면 너희가 한때 나로부터 빛과 능력과 자유한 상태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를 떠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빛과 능력과 자유를 잃었다. 인간으로써 이제 너희는 다시 나를 그리고 너희의 원래 상태를 추구한다는 너희의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 증명하는 일은 너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의지가 강하게 될 때 너희가 그에게 향할 때 그리고 그에게 너희의 죄를 사해 주기를 구할 때 너희의 죄를 위해 그가 그의 피를 흘리기를 원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너희는 예수와 그의 구속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왜냐면 너희가 예수 안에 나 자신을 부른다는 것을 그리고 부름으로써 이미 나에게 돌아오려는 너희의 의지를 나타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나와 예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즉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내 피조물인 너희를 위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나타냈다. 내가 모든 무한함을 채우는 영으로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 형체에 전적으로 비추어서 나로부터 창조 된 존재가 이제 나를 대면해 볼 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절대로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항상 그리고 항상 반복해 내 말을 통해 예수 안에서 내가 인간이 된 것이 창조주 아버지가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준 가장 큰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너희는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단지 예수 안에서 나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시킬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너희의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들부터 다시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이를 인정하는 것이 너희의 이 땅의 전 삶의 목적과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은 너희가 나에게 귀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너희의 원죄를 해결한 예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깨달음을 주고 그들 안이 빛이 되게 그들이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게 경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런 지식을 모든 진리 안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나는 직접 내 말을 이 땅에 보낸다. 왜냐면 진리가 너희 심장에 비쳐지는 너희의 성품을 원래 초기에 너희의 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빛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단지 진리를 통해 나를 깨닫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단지 진리가 너희에게 십자가로 인도하는 길을 밝혀 줄 것이다. 너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속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과 어두움.

B.D. No. 4956

1950년 8월 25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 너희는 사람들이 힘들 이지 않고 도달할 수 있는 길과 다른 길을 통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모든 혼을 얻기 위해 씨름하고, 혼이 멸망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내 은혜로 항상 또 다시 혼에게 접근하고,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기를 원한다. 왜냐면 그들 혼자서는 자신을 구원하는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구원하는 목표를 진지하게 추구하기 위해 힘이 부족한 혼에게 내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준다. 혼은 단지 저항하지 않고 내 은혜의 효력에 자신을 맡기면 되고, 단지 내 사랑이 자신을 이끌게 하면 된다. 즉 혼이 은혜의 선물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면 혼은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눈이 먼 가운데 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내 은혜를 또한 거부한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의 어두운 상태를 고려한다. 나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저주와 동일한 사탄의 사슬로부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는다. 왜냐면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멀어지는 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나는 눈이 멀었고 무지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다. 그러므로 항상 또 다시 계속하여 그들을 만난다. 그들은 실제 나와 내 은혜를 거부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대한 지

식이 부족하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거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내 은혜를 선물로 깨달았지만 내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은 내 사랑에 대항하는 죄를 짓고 공황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비록 내가 항상 또 다시 그에게 다가 가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더 힘들게 다가간다. 왜냐면 내가 고통스러운 수단으로 그의 심장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그런 수단 안에서 나를 깨닫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기 때문이다.

고난도 또한 은혜의 선물이다. 왜냐면 사람이 혼자서 길을 찾지 못하거나 갈 수 없다면, 고난이 사람을 나에게 인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즉 선물의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가장 귀한 선물을 거부하면, 그에게 내 선물이 두 번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거절한 은혜의 선물에 따라 책임을 져야만 하고 그는 또한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왜냐면 내가 그에게 제공한 빛을 그가 자신의 잘못으로 꺼버렸고, 어둠이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빛을 땅으로 비춘다. 광선에 영향을 받게 하는 사람의 내면은 깨우침을 받고 영적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 이런 빛의 광선은 내가 이 땅에 주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다. 내 지혜는 진실로 누가 이 빛을 지킬 수 있는지를 안다. 그러나 내 의지가 절대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빛을 자신 안으로 영접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빛이 되도록 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깨닫기 원한다면, 그가 이 빛을 하늘의 빛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일은 은혜의 선물이 주는 역사이다. 이런 역사가 나를 진지하게 추구하고 내 사랑이 그에게 제공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람이 올바르게 사용한 또는 잘못 사용한 자신의 의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하게 될 때, 무지를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신에 내 사랑과 공황을 대한 혼의 저항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나의 대적자이기 속한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의 대적자도 마찬가지로 아래로부터 사람에게 역사하고 사람이 내 은혜의 선물을 거부하도록 유도한다.

사람은 자유하고, 혼의 영적 성장에 관한 일에서 위로나 아래로부터 강요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가 은혜의 선물을 갈망하는 손을 펼치도록 그는 절대로 강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에게 은혜의 선물이 다시 주어질 것인지는 의심스럽게 된다. 왜냐면 단지 크게 후회하는 가운데 나에게 진심으로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혼이 다시 빛 발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나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빠지고, 모든 빛을 피할 것이다. 왜냐면 어둠의 권세자가 그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그가 저항하지 않고 없이 어둠의 권세자의 권세와 힘에 굴복하기 때문이다.

아멘

겸손하라는 권면.

B.D. No. 7678

1960년 8월 20일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너희가 겸손하게 나에게 복종하면서 내 은혜를 구하고 영적인 위험 가운데 도움을 구하면서 연약함을 극복하려고 하라. 왜냐면 만약에 그가 가장 작

은 사람들 중의 하나로써 자신의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혼의 구원을 도우면, 가장 작은 자에게 내가 가까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큰 자가 선택받는 것이 아니고 단지 진정 겸손한 사람이 선택을 보장받는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지라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택함을 받는다. 다시 말해 내 택함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진정한 겸손에 들어서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사람들 모두에게 아직 인정을 받으려는 소원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들어 나갈 원한다. 그들은 관심 받기를 원하고 중요하게 여겨 지기를 원한다. 이는 이미 무제한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진정한 겸손에 장애가 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을 그의 의지대로 행하게 한다. 너희는 단지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너희에게 해가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자신을 적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는 동안 그가 나와 영적인 연결을 구하면, 그는 영으로 진리로 나와 대화한다. 그러면 내 영이 그 안으로 흘러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그에게 제한이 없이 은혜를 제공할 수 있다. 그가 자신 안에서 내 음성을 듣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인정받으면, 그의 겸손은 쉽게 변화되고 항상 사람들에게 위험한 자기만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는 항상 스스로 무엇이 이웃에게 너희의 말을 하게 너희를 움직이는지 점검해야 한다. 너희는 모든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이 내 대적자가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러면 너희가 나 자신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에게 말하는 일을 방해함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나를 섬기기 원하면,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 왜냐면 너희가 어디에서 하던지 간에 너희는 항상 조용한 골방에서 나에게 기도해야만 하고 나에게 내 은혜를 구해야만 한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주 단지 화제거리를 기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너희가 둘러싸여 있으면, 너희는 너희의 골방으로 물러날 수 있느냐?

너희는 한 순간이라도 내가 생각으로 나에게 향하는 어린 아이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그에게 답변함을 그리고 내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의 자기만족에 느낌을 깨달으면, 비록 그가 나에게 기도할지라도 영으로 진리로 하지 않으면, 내가 침묵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먼저 이런 느낌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한다.

너희는 작고 겸손하게 나에게 나타나고 세상의 관심을 너희에게 끌어 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내가 실제 너희 가운데 거함을 믿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만족이나 교만이나 또는 영적인 거만은 내 임재를 막고 이제 천사의 빛의 옷을 입고 자신을 소개하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없는 내 대적자에게 문과 대문을 열어준다.

심장의 겸손이 가장 좋은 시험석이다. 왜냐면 내가 겸손한 자에게 내 은혜를 선물하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가 내 말씀을 구하면, 너희 자신을 올바른 겸손으로 만들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러면 너희는 내 역사를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로부터 음성을 들을 것이고 너희가 구한대로 능력과 빛을 받을 것이다.

거만의 위험.

B.D. No. 8281

1962년 9월 24일

내 말 "너희는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말을 심장에 영접하면, 그는 깊은 겸손가운데 남게 된다. 그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가혹한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 자기 자신도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는 깨달음이 자기가 항상 연약하고 힘과 능력을 제공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것이다. 그는 겸손한 심장으로 나에게 와서 힘과 능력을 구할 것이다. 반면에 자신과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며 그는 이웃들 앞에서 교만해질 것이다.

이 교만은 남을 낮게 보고 사랑이 없는 판단과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상적이나 영적인 가르침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거만한 사람은 이웃들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항상 믿는다. 이러 거만함은 그를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만든 내 대적자의 요소이다.

대적자는 사람들과 자신의 창조주인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큰 무리의 피조물들을 자기와 같이 깊은 곳으로 타락하게 했다. 모든 타락한 존재들에게 그가 인간으로 마지막 의지의 시험을 봐야 할 때에 거만한 영의 것들이 아직 많이 달라붙어 있다. 거만함은 온전하지 못한 걱정스러운 증거이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와 싸워야만 하고 깊은 겸손으로 나에게 나와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웃들에 대해 자기를 높이지 않게 되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 전적인 이해심을 가지게 된다. 그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깊은 겸손은 나와의 올바른 관계에 속한 것이다. 깊은 겸손은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그에게 자유롭게 해달라고 부탁하게 만든다. 겸손은 예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게 하고 그는 예수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받을 것이다. "겸손한 자에게 나는 내 은혜를 베푸다" 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도 그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는 자신 스스로 온전 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는 높은 정도의 지식을 소유할 수는 있다. 그런데 이것이 그를 계속 겸손하게 만든다. 왜냐면 그가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끝없는 사랑을 깨닫기 때문이다. 이 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는 것으로 피조물 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하며 그러나 거만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거만은 항상 그의 깨달음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왜냐면 대적자는 빛을 흐리게 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고 사람들은 대적자의 일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가 대적자와 대적자의 말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모두는 아직 이런 죄악과 열심히 싸워야 한다. 내 대적자가 항상 너희에게 잘못 된 존귀감을 불어넣어 주고 너희 안에서 자만한 생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공격할 만한 요소 찾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해야 하고 모든 거만한 생각을 싹부터 없애려고 해야 한다. 너희는 너희 구원자요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의 교만으로 타락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 깊은 겸손의 길을 간

것을 항상 생각해야만 한다. 속죄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 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해야 한다. 너희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교만으로 인해 일어난 깊은 타락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길은 단지 겸손의 길을 통해 이뤄진다. 너희는 인생의 길에서 너희에게 너희가 연약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존재라는 깨달음과 다시 높은 곳에 이르기 위해 이 땅의 삶을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단지 내 도움을 부탁하기만 된다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아직 거만한 영에 있는 자는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는 나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그 안에서 이웃을 포함하는 올바른 사랑이 발전되어 나올 수가 없고 그는 자신의 거만 때문에 사랑을 선물하려는 나를 멀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사랑의 삶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만함은 영적인 성장을 주지 못하고 내 대적자가 그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이 죄악과 싸우라. 너희 자신에게 날카로운 비판을 하라 그러면 너희의 실수를 찾게 될 것이고 이 실수를 작게 만들게 될 것이고 너희가 자신을 잘못 평가해 스스로 새운 권좌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겸손만이 너희를 성장하게 한다. 왜냐면 너희는 이로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왜냐면 너희가 겸손 가운데 나에게 오고 너희의 기도가 진실 되고 헌신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고 너희를 내 자녀로 나에게 이끌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최종적으로 내 대적자와 결별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창조한 능력보다 자신을 더 높임으로 내 대적자가 된 것이다.

아멘